한국금융학회
추계 정책심포지엄
발표자료

가계부문 건전성의 평가와 시사점[1)]

2012년 10월 31일 | 김 영 일

Korea's Leading Think Tank KDI

1) 본 자료는 2012년 한국금융학회 추계 정책심포지엄 발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발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CONTENTS

1. 가계부문 건전성에 대한 문제제기

2. 가계부문 부채상환여력 관련 현황

3. 가계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4. 가계건전성 위협요인에 대한 평가

5. 시사점과 정책대응 방향

1. 가계부문 건전성에 대한 문제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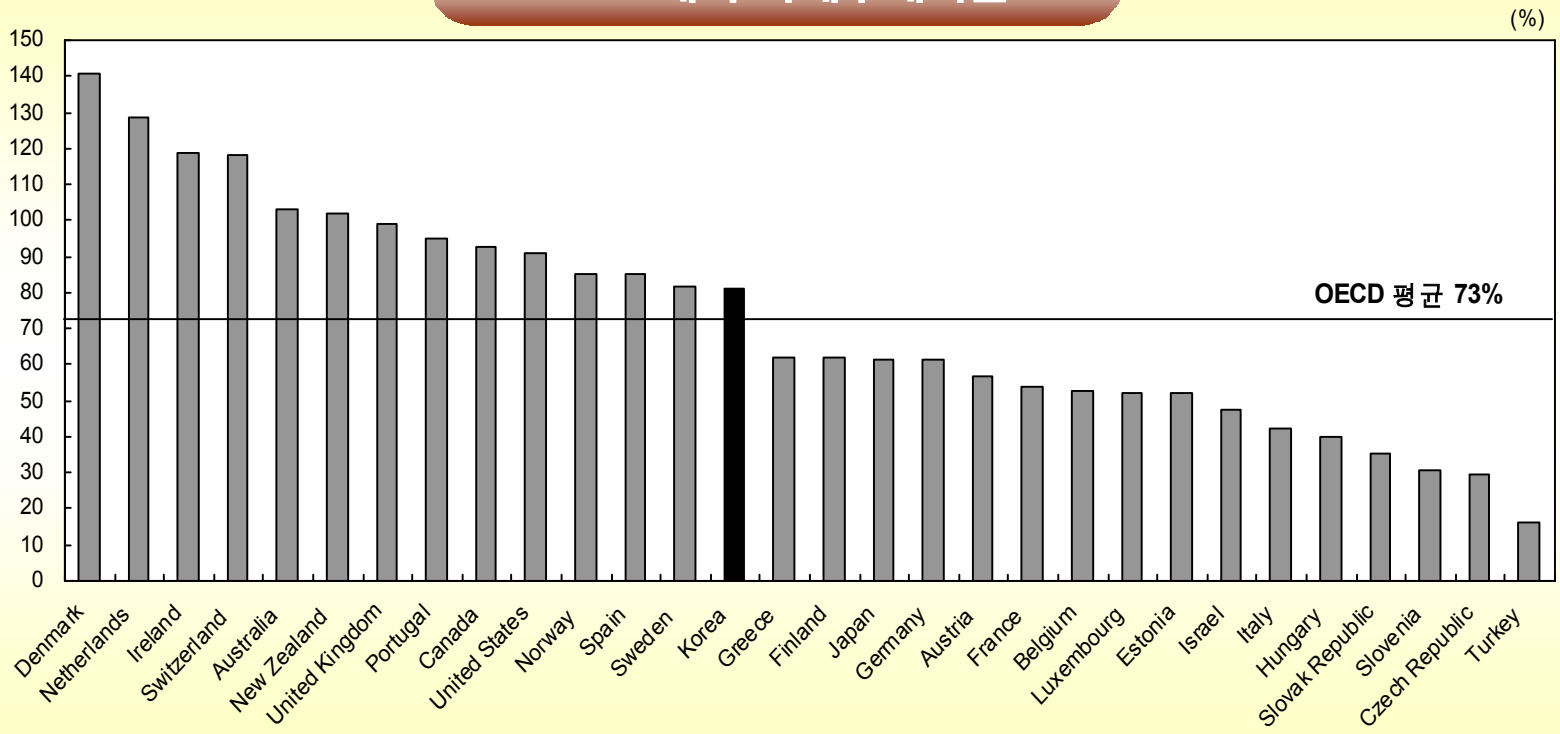
1. 가계부문 건전성에 대한 문제제기

KDI

가계부채 수준에 대한 우려

- 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해당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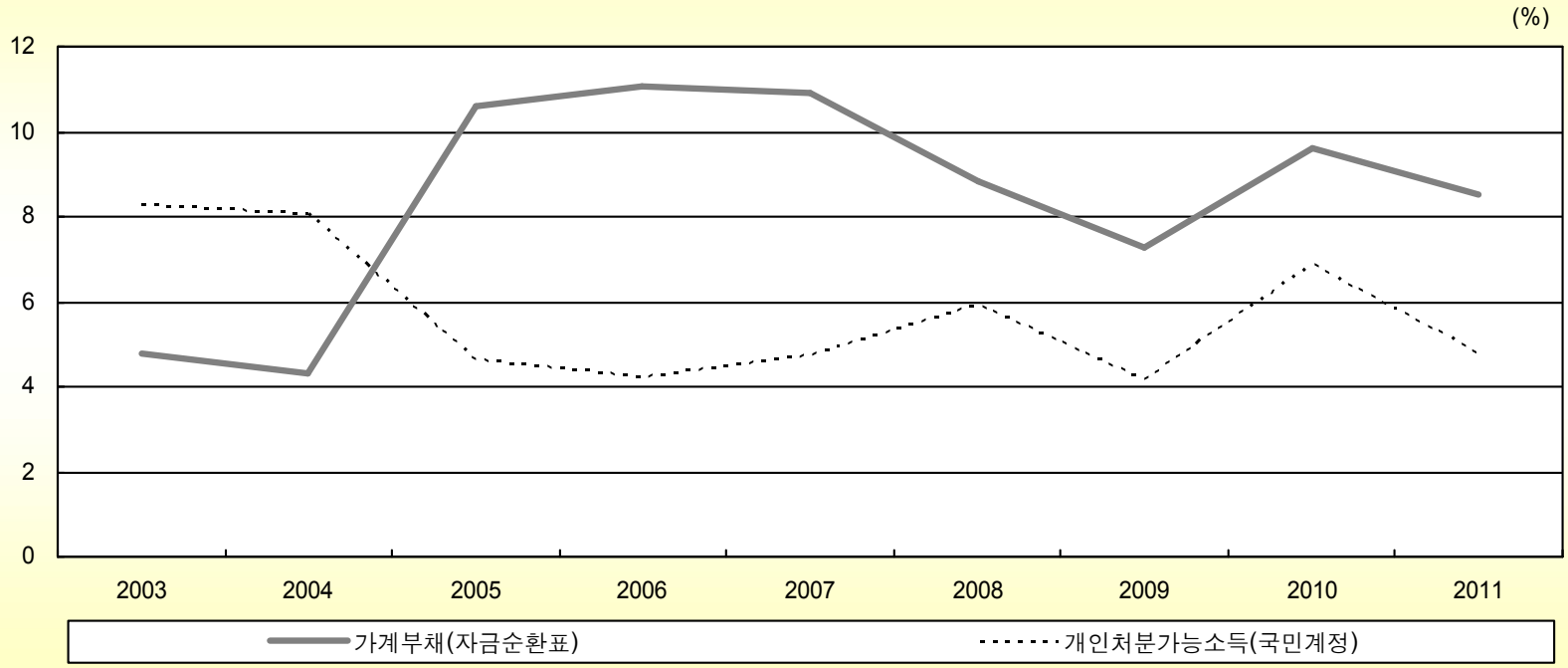
1. 가계부문 건전성에 대한 문제제기

KDI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대한 우려

- (처분가능) 소득 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
-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향후 부채조정에 대한 우려

가처분소득 및 가계부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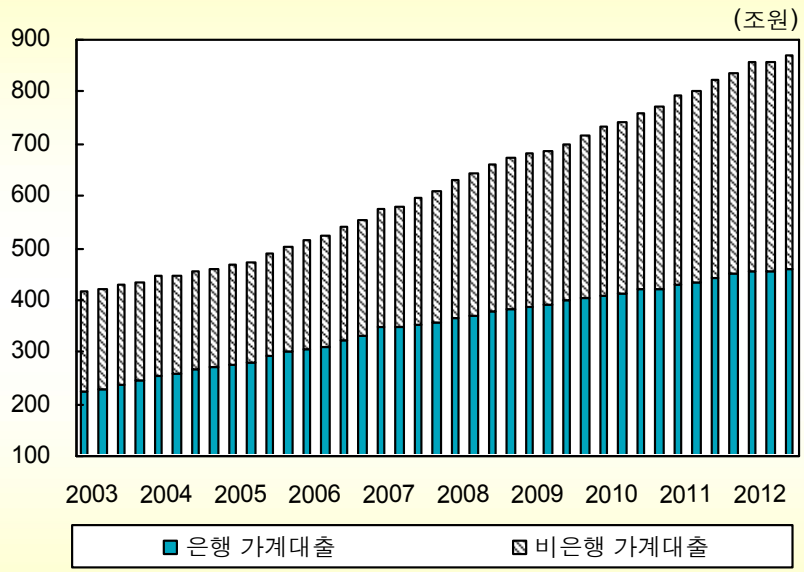
1. 가계부문 건전성에 대한 문제제기

K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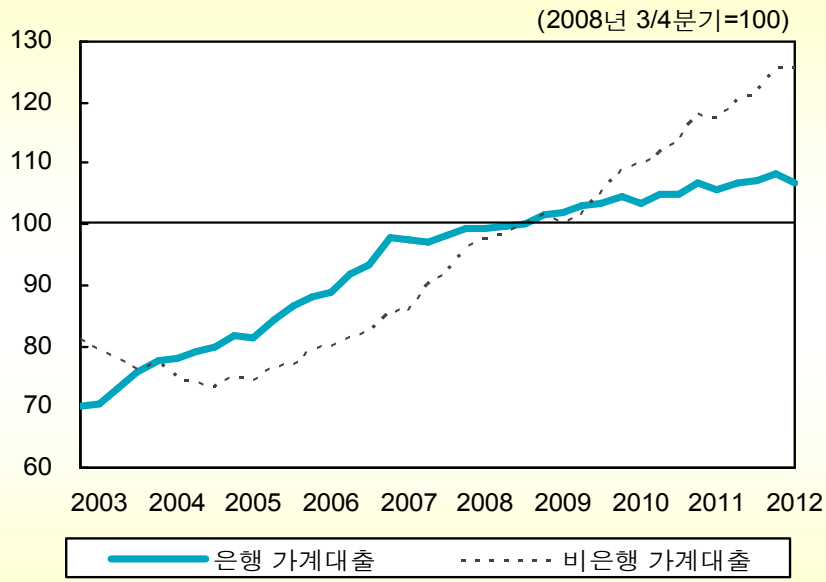
가계부채의 구성상 문제: 은행 vs. 비은행 금융기관

-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비교적 안정적 증가세를 기록했던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기록

금융기관별 가계대출(명목)



금융기관별 가계대출(CPI로 실질화)



주: 그림에서 은행은 예금은행이며, 비은행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과 기타금융기관으로 구성.

자료: 한국은행 가계대출 통계.

1. 가계부문 건전성에 대한 문제제기

KDI

가계대출(상품)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우려

- 비교적 짧은 만기의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은 편임.
  - 해당 부채가구는 만기시 차환위험(refinancing risk)에 노출
  -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발생시 차환위험이 증폭될 가능성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은 편임.
  - 해당 부채가구는 금리변동위험에 노출

1. 가계부문 건전성에 대한 문제제기

KDI

가계부채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충격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우려

- GDP 증가율의 둔화가 예상
- 주택시장의 부진이 지속
- 대외부문의 불확실성: 세계경제의 하방위험과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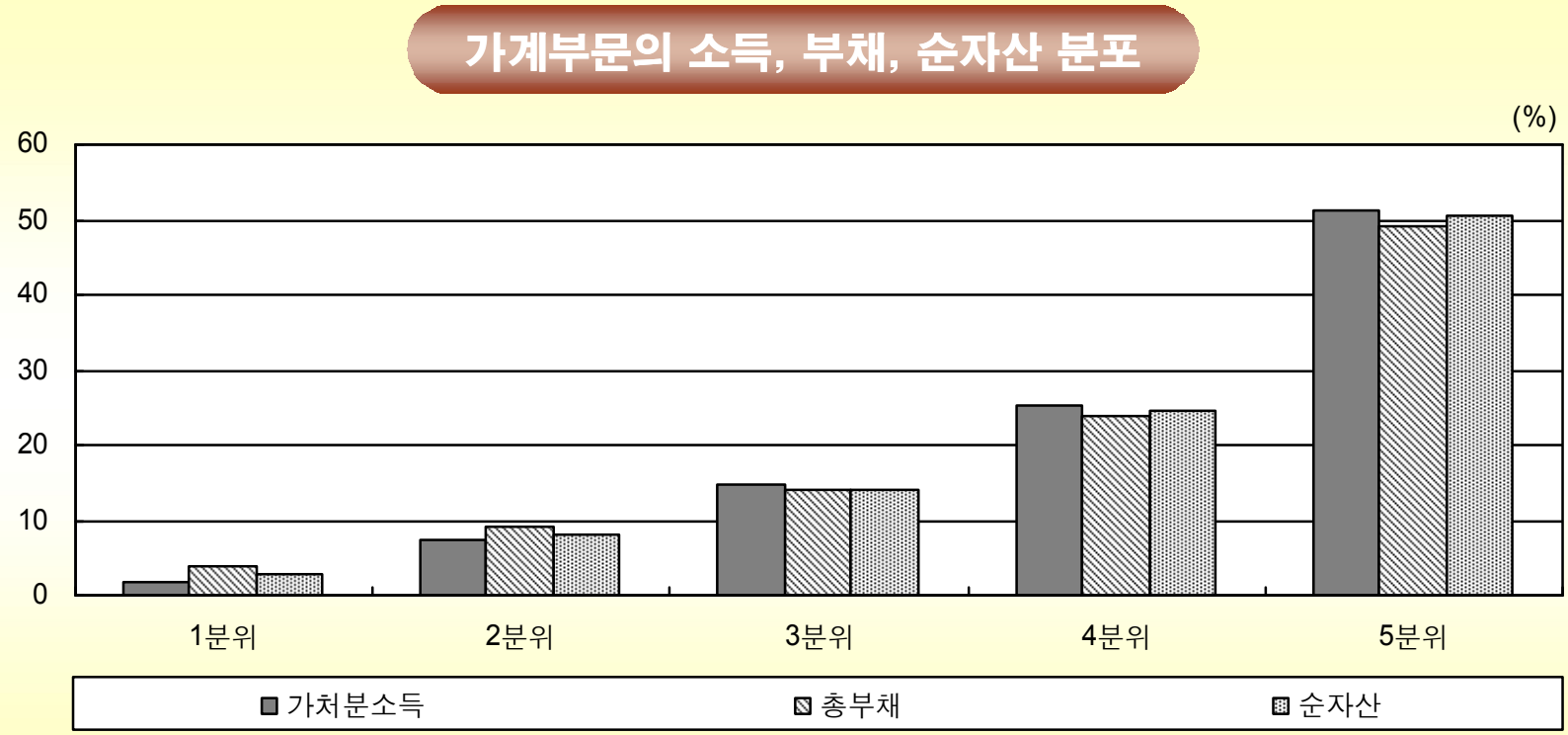
상기 요인은 가계부채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언급

2. 가계부문 부채상환여력 관련 현황

2. 가계부문 부채상환여력 관련 현황

가계부문의 소득, 부채, 순자산 분포

- 상위 소득가구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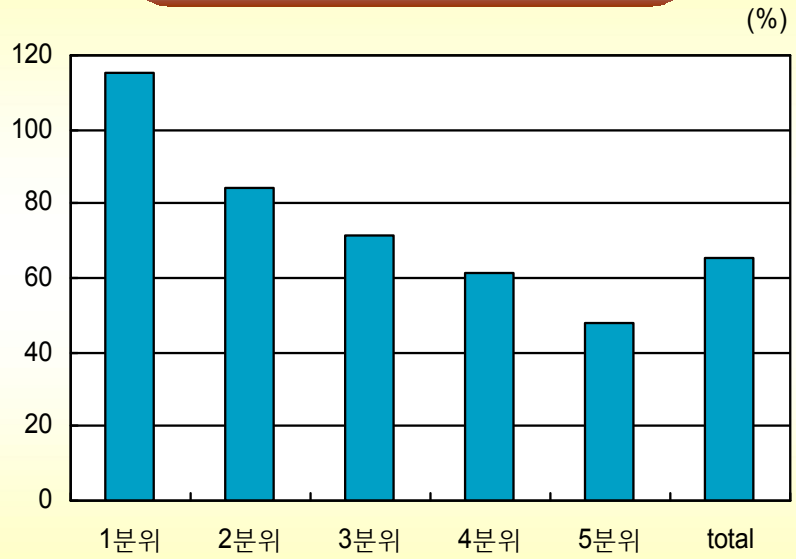
주: 가계금융조사(2011년)를 이용하여 계산.

2. 가계부문 부채상환여력 관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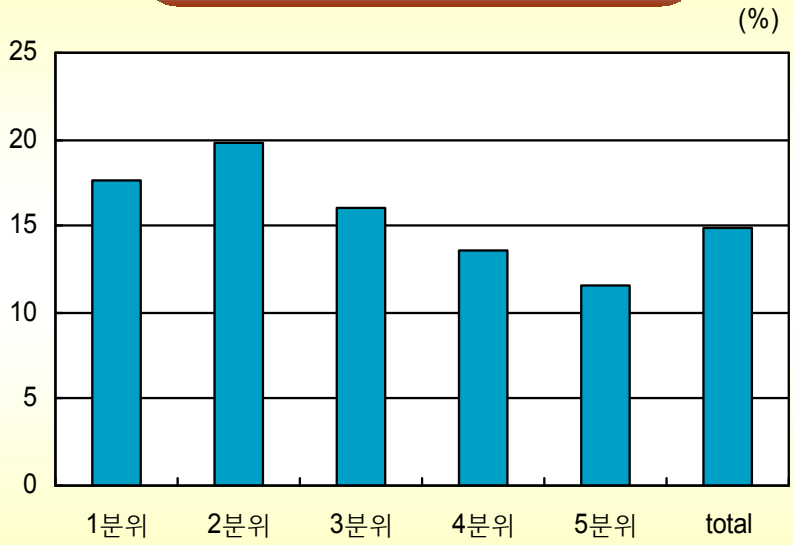
소득계층별 평균소비성향과 부채상환부담

-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소비성향(소비/소득)을 나타냄.
-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부채상환부담(부채상환액/소득)을 나타냄.
  - 저소득층일수록 현금유동성상의 재무여력(financial margin=Y-C-DS)이 열악함을 시사

소득대비 소비(중위수)



부채상환비율(중위수)



주: 그림에서 소비는 노동패널자료에 의해 추정한 소비식과 가계금융조사(2011)를 이용하여 계산

3. 가계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3. 가계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KDI

가계의 부채상환여력은 현금흐름상의 재무여력과 순자산여력을 토대로 설명할 수 있음.

- 현금흐름상의 재무여력(FM=Y-C-DS)이 양(+)일 경우 소득이 소비와 부채상환액을 상회하므로 채무이행을 위한 현금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
- 순자산(NW=A-D)여력이 양(+)일 경우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므로 지불능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
- 그러나 가계재무여력과 순자산여력이 모두 음(-)일 경우에는 채무이행을 위한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가운데 지불능력도 없는 것으로 해석

다음의 분석에서는 가계재무여력과 순자산여력이 모두 음(-)인 경우를 채무상환여력이 없는 경우로 평가

- 다만, 부도확률, 가계대출자산 손실률 등을 계산하는데 있어 부도시 자산에 대한 회수율 $(=1-z)$ 을 적용

3. 가계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KDI

가구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

- **부도확률(PD)을 다음과 같이 비모수적 방법으로 정의**

$$PD = [1 - I(FM / Y)] \bullet [1 - I(NW / A - z)]$$ [2)]

- **EAD(Exposure at Default)와 LGD(Loss Given Default)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음.**

$$EAD = \left[\sum_{i}^{N} PD_i * D_i \right] / \left[\sum_{i}^{N} D_i \right]$$

$$LGD = \left[\sum_{i}^{N} PD_i * \max(0, D_i - (1 - z) A_i) \right] / \left[\sum_{i}^{N} D_i \right]$$

2) I(•) 함수는 표시함수(indicator function)이며 I(•)값이 음(-)이면 0,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로 정의한다.

3. 가계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스트레스 시나리오 구성

-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여 구성하되 최근 우려되는 위험을 적극적으로 고려

Scenario	소득	자산	이자율
Baseline	0%	0%	0%p
Scenario1 (bad)	-1.8%	-2.0%	+0.8%p
Scenario2 (worse)	-5%	-5%	+1%p
Scenario3 (worst)	-10%	-10%	+2%p

주: scenario1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스트레스 상황에 해당.

- 부도시 자산회수율$(1-z)$에 대한 가정: 100%, 90%, 80%

3. 가계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KDI

소득계층별 영향 평가

- 저소득층일수록 위험부채가구의 비중과 위험부채액의 비중이 비교적 큰 가운데, 충격에 대한 취약성도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남.

		Baseline			Scenario 1			Scenario 2			Scenario 3		
		z=0	z=0.1	z=0.2	z=0	z=0.1	z=0.2	z=0	z=0.1	z=0.2	z=0	z=0.1	z=0.2
1분위	HH at risk	13.84	15.66	17.30	14.57	16.21	18.03	15.48	17.12	18.76	16.58	18.21	20.04
	EAD	10.53	14.53	16.71	11.12	14.76	16.96	12.42	15.36	17.89	14.85	17.04	18.71
	LGD	7.68	8.14	8.93	7.91	8.44	9.26	8.08	8.71	9.56	8.41	9.11	10.05
2분위	HH at risk	6.05	6.88	7.53	6.42	6.98	7.91	6.70	7.72	8.74	7.63	8.28	10.33
	EAD	7.13	7.52	8.30	7.23	7.53	8.50	7.31	8.30	9.68	7.83	8.61	12.11
	LGD	4.47	4.75	5.11	4.52	4.81	5.18	4.66	4.96	5.35	4.91	5.24	5.75
3분위	HH at risk	2.24	2.47	3.01	2.32	2.61	3.17	2.40	2.86	3.86	2.78	3.32	4.40
	EAD	4.71	5.07	6.58	4.81	5.11	6.78	4.87	6.36	8.89	5.51	7.02	9.68
	LGD	2.06	2.34	2.74	2.11	2.40	2.82	2.24	2.53	3.02	2.49	2.87	3.49
4분위	HH at risk	1.10	1.38	1.79	1.17	1.45	1.93	1.24	1.65	2.20	1.51	2.00	2.75
	EAD	2.23	2.80	3.79	2.58	2.91	4.45	2.61	3.40	4.83	2.96	3.97	5.99
	LGD	1.10	1.25	1.49	1.13	1.29	1.54	1.18	1.34	1.64	1.36	1.57	1.93
5분위	HH at risk	0.49	0.98	1.47	0.77	0.98	1.47	0.91	1.19	1.68	1.12	1.68	2.10
	EAD	1.84	4.57	5.64	2.73	4.57	5.64	4.51	5.14	6.26	4.74	5.89	6.86
	LGD	0.67	1.00	1.44	0.70	1.07	1.53	0.80	1.18	1.67	1.01	1.44	1.97
전 체	HH at risk	3.33	3.90	4.52	3.57	4.02	4.72	3.78	4.40	5.23	4.26	4.91	6.00
	EAD	3.15	4.86	5.99	3.71	4.90	6.20	4.66	5.57	7.03	5.08	6.26	7.97
	LGD	1.58	1.86	2.26	1.63	1.93	2.34	1.72	2.03	2.48	1.94	2.31	2.83

주: HH at risk는 현금유동성과 순자산여력이 약한 위험부채가구의 비율을, EAD는 부도위험에 노출된 부채액의 비율을 나타냄. LGD는 해당 가계부채 중 회수가 어려운 부채의 비율로서 예상손실률을 나타냄. 가계금융조사(2011)를 토대로 계산.

3. 가계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KDI

금융업권별(은행vs. 비은행) 영향 평가

- 가계대출 중 부실위험이 높은 부채액의 규모는 은행부문이 비교적 적은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비교적 크게 나타남.

		Baseline			Scenario 1			Scenario 2			Scenario 3		
		z=0	z=0.1	z=0.2	z=0	z=0.1	z=0.2	z=0	z=0.1	z=0.2	z=0	z=0.1	z=0.2
은행만 차입	HH at risk	1.38	1.56	1.92	1.44	1.62	1.98	1.56	1.80	2.16	2.04	2.40	2.94
	EAD	0.93	1.64	2.56	0.94	1.66	2.57	1.61	2.00	3.13	1.81	2.73	3.69
	LGD	0.27	0.38	0.56	0.30	0.42	0.61	0.33	0.46	0.69	0.48	0.64	0.92
비은행만 차입	HH at risk	4.46	5.08	5.63	4.75	5.16	5.97	5.05	5.60	6.37	5.53	6.12	7.07
	EAD	5.33	6.35	7.39	5.74	6.36	8.11	5.99	7.14	8.46	6.68	7.88	9.50
	LGD	3.60	3.83	4.17	3.64	3.88	4.25	3.75	4.02	4.42	3.95	4.28	4.78
동시차입	HH at risk	3.46	4.38	5.43	3.81	4.66	5.58	3.95	5.15	6.63	4.45	5.58	7.55
	EAD	4.15	7.63	9.08	5.51	7.73	9.15	7.35	8.70	10.70	7.84	9.30	12.01
	LGD	1.59	2.12	2.83	1.66	2.23	2.96	1.82	2.41	3.17	2.15	2.80	3.63
은행차입	HH at risk	2.33	2.85	3.53	2.53	3.01	3.63	2.66	3.34	4.21	3.14	3.86	5.06
	EAD	2.37	4.34	5.49	2.99	4.39	5.53	4.19	5.01	6.53	4.52	5.68	7.43
	LGD	0.87	1.16	1.58	0.91	1.24	1.67	1.00	1.34	1.80	1.23	1.61	2.13

주: HH at risk는 현금유동성과 순자산여력이 약한 위험부채가구의 비율을, EAD는 부도위험에 노출된 부채액의 비율을 나타냄. LGD는 해당 가계부채 중 회수가 어려운 부채의 비율로서 예상손실률을 나타냄. 가계금융조사(2011)를 토대로 계산.

3. 가계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KDI

한편, 채무자의 신용위험은 차입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에 주로 의존

- 차입한 비은행금융기관의 수가 많은 다중채무자일수록 연체발생빈도가 비교적 크게 증가하는 경향

구분			은행 기관수			
			0개	1개	2개	3개이상
비은행 금융기관수	0개	차주수 (연체)	-	32.6 (0.5)	7.4 (0.6)	1.1 (2.1)
	1개	차주수 (연체)	26.1 (1.9)	9.6 (1.8)	2.3 (1.7)	0.5 (1.8)
	2개	차주수 (연체)	7.6 (3.5)	3.7 (3.1)	1.0 (3.5)	0.2 (3.4)
	3개이상	차주수 (연체)	4.4 (9.3)	2.6 (7.7)	0.9 (9.2)	0.3 (7.4)

주: 해당 수치는 KCB 자료(2011년 7월)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안은 연체차주 비중임(녹색: 3~5%, 회색: 5~10%).

4. 가계건전성 위협요인에 대한 평가

4. 가계건전성 위협요인에 대한 평가

KDI

GDP 증가율 둔화의 영향

- 소득 증가율 둔화와 실업률의 상승 가능성은 가계부문의 부채상환부담을 상승시켜 부채상환여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

주: 2012년 이후는 국내외 주요 전망기관의 GDP 증가율 예측치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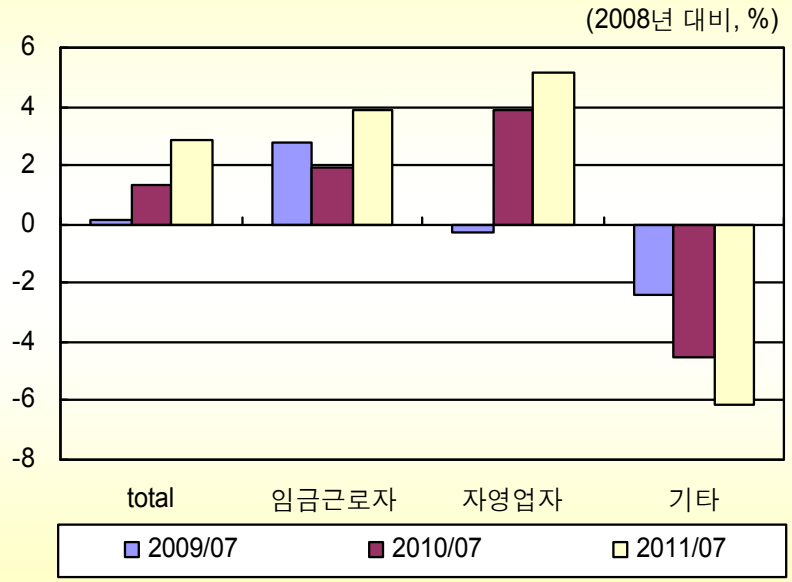
4. 가계건전성 위협요인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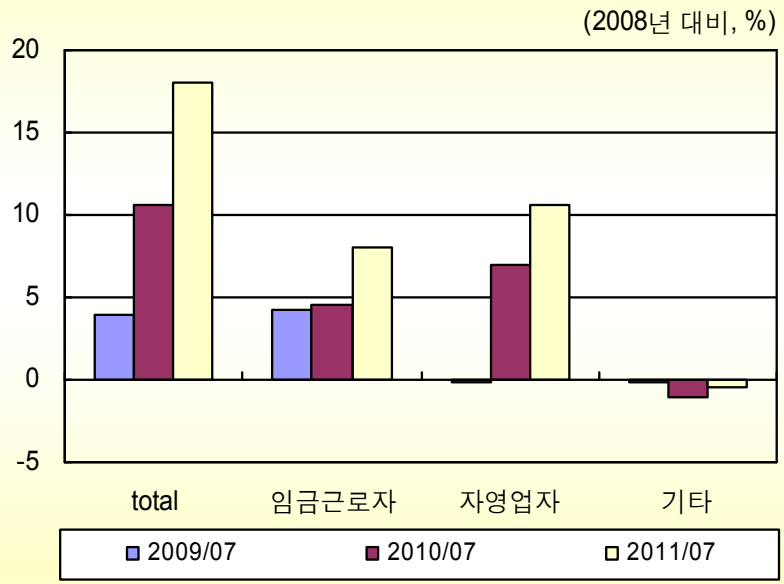
KDI

한편, 종사상지위별로는 (향후 내수경기가 둔화될 경우) 자영업종사 채무자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인부채의 확대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임.

2008~11년 차주수(좌)와 부채액(우) 증감에 대한 종사상 지위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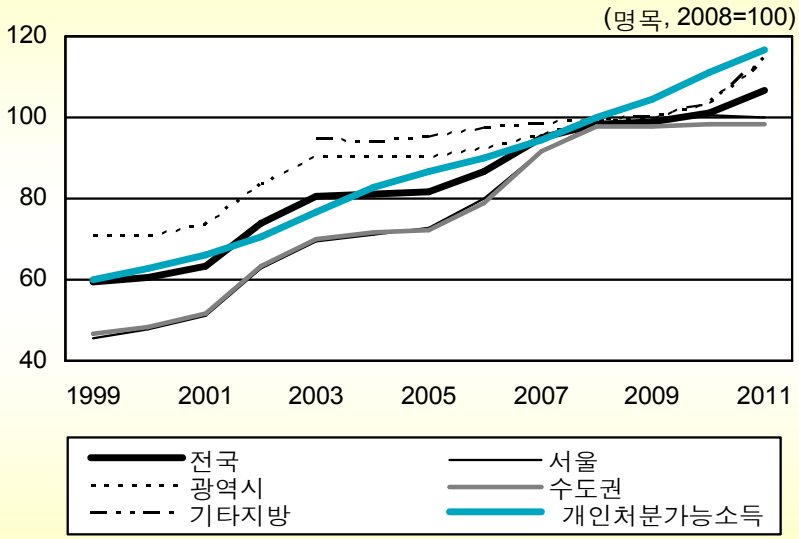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4. 가계건전성 위협요인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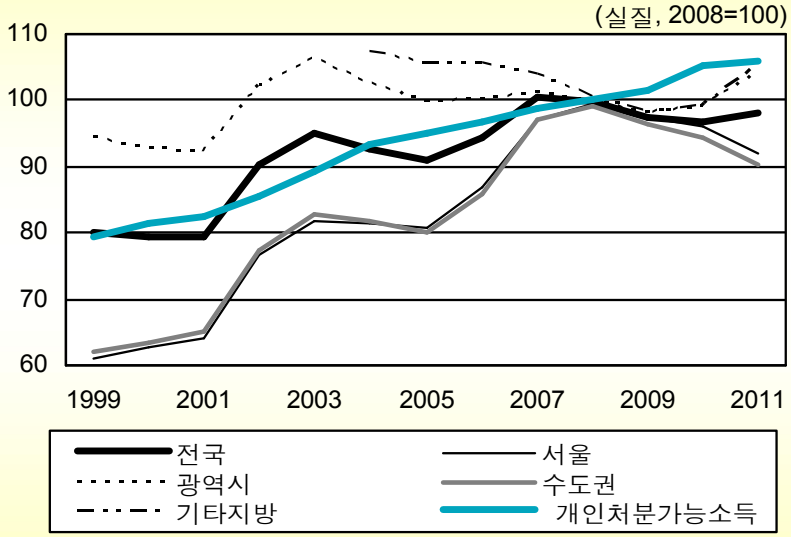
주택시장 부진에 대한 평가

-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가격 사이에 현저한 추세적 차이를 발견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이 조정을 경험한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는 소폭의 상승을 기록

주택가격지수 (명목, 2008년=100)



주택가격지수 (실질, 2008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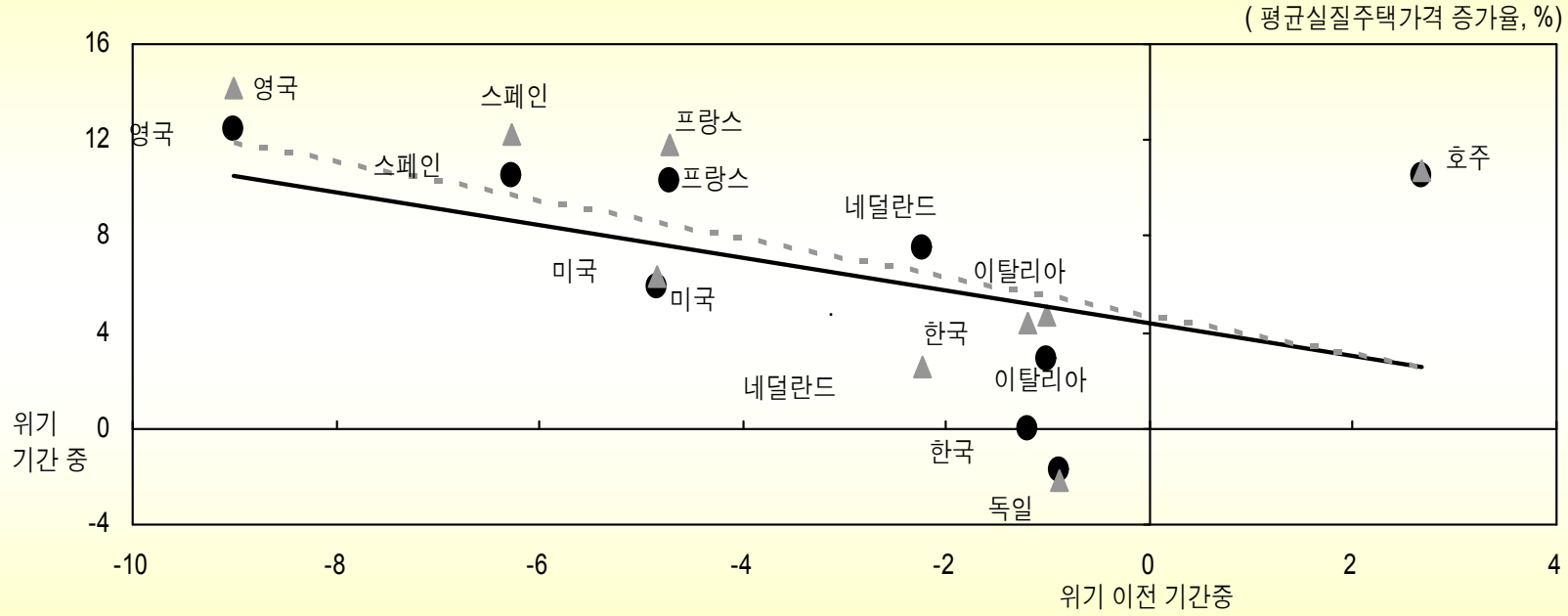
주: 해당변수의 명목 및 실질값(CPI로 실질화)은 국제금융위기가 심화된 2008년을 기준값 100으로 설정하여 추이 비교.
자료: 국민은행, 통계청.

4. 가계건전성 위협요인에 대한 평가

KDI

과거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컸었던 국가일수록 위기기간 중 주택가격의 조정폭도 큰 경향

금융위기 전후 주택가격 상승과 하락 정도의 국가별 비교



주: 그림에서 ●는 1995~2007년의 위기이전과 2007~09년의 위기기간에 대해, △는 2000~07년의 위기이전과 2007~09년의 위기기간에 대해 실질주택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을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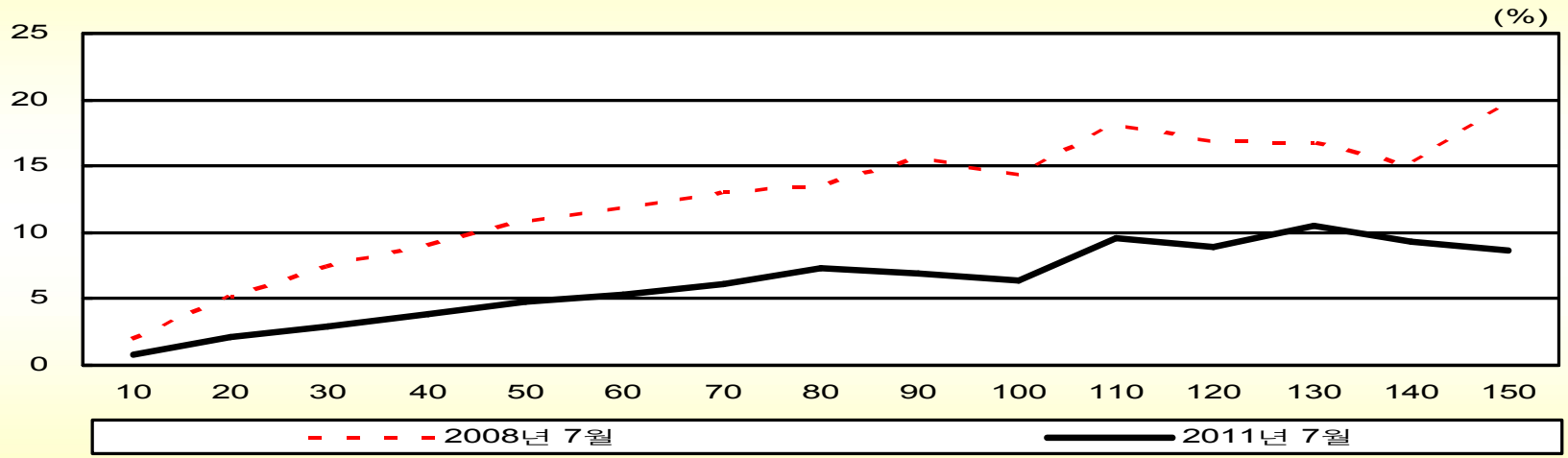
4. 가계건전성 위협요인에 대한 평가

KDI

만일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 실현된다면 금융시장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개인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상승할 가능성

- 2008년 위기처럼 금융시장여건 악화는 연체율 상승 요인
- 특히, 단기 원금일시상환에 편중된 대출구조는 만기시점에 금융시장 여건이 악화된다면 상환여력이 있는 채무자의 연체율도 상승할 가능성

연체확률 비교(2008/07과 2011/07 비교)



주: 해당 시점에서 향후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 연체발생빈도(KCB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를 DSR 구간별로 표시.

4. 가계건전성 위협요인에 대한 평가

KDI

세계경제의 하방위험과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 무역경로: 세계경제의 성장률 둔화(또는 회복지연)는 수출부진을 초래함으로써 국내경제의 성장률 둔화요인이 될 가능성
- 금융경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될 경우 외국자본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대외충격에 대응한 정책여력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평가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여력
- 외환보유액과 순해외자산 여력
  - 단기해외부채/외환보유액 (2011년말) = 44.4%
- 은행부문의 자본여력
  -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2011년말) = 14.3%

⇒ 이상과 같은 정책여력과 건전성은 대외충격 발생시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5. 시사점과 정책대응 방향

5. 시사점과 정책대응 방향

KDI

금융 안정성(financial stability)에 대한 시사점

- 극단적인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가계부채의 부실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다만, 금융시장 충격에 의해 차환위험이 증폭될 가능성에는 유의
  - 선제적인 금융시장 안정화 계획을 마련하여 위기발생시 대응

사회적 안정성(social stability)에 대한 시사점

- 향후 거시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 한계부채가구를 중심으로 부도(또는 연체) 발생빈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불안정성이 확대될 가능성

5. 시사점과 정책대응 방향

KDI

가계부문과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

- 향후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부채상환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문의 현금흐름상 재무여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
- 가계부문의 재무여력 약화와 더불어 향후 가계신용 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민간소비의 부진이 예상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대응 방향

-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의 위험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부채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
  - 단기적으로는 만일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대비하여 사전에 비상계획 (contingency plan)을 마련하는 등 위험관리능력을 제고
  - 장기적으로는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참고자료

참고자료[3)]

- 김영일 · 유주희(2012), “가계대출 부실위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working paper.
- 김영일 · 변동준(2012),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요현황과 위험도 평가: 차주단위 자료를 중심으로,” working paper.
- 김영일(2012), “가계부문 부채상환여력의 평가와 시사점,” KDI 경제동향 현안분석(2012년 8월).
- 김영일(2011), “가계부문 건전성과 경제위기,” 조동철 · 김현욱 편 ‘경제세계화와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역량,’ KDI 연구보고서 2011-03.

3) 본 발표자료는 해당 참고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감 사 합 니 다.